「テイク」「テクル」와 「어 가다」「어 오다」의 문법화의 차이점

이정옥*
jungok-ok@hanmail.net

<目次>

1. 연구 목적
2. 일본어의 「テイク・テクル」의 문법화 과정
3. 문법화의 차이
3.1 「イク・クル」와 「가다 오다」
3.2 한국어의 「어 가다」로 본 일본어의 「テイク」
3.3 일본어 「テクル」로 본 한국어의 「어 오다」
4. 마치며

主題語: テイク(te iku), テクル(te kuru), 어 가다(a gata), 어 오다(a ota), 문법화(grammaticalization)

1. 연구 목적

> 한국어와 일본어는 상당히 비슷한 언어라 알려져 있으므로 유사점은 쉽게 눈에 들어오나 양언어간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언어임에 틀림없다.
> (日本語と韓国語は互いに非常によく似ているため、類似点ばかりが目立つが、注意深く観察すれば、両言語間には相違点があるのを様々な箇所で見出すことができる)

라는 塚本(츠카모토 2006:16-17)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일대조연구에 있어서는 유사점에만 주목하여 상호 이해하기 쉬운 언어라는 측면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맞춰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비슷한 언어이므로 더더욱 상이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일 양국어의 상이점을 고찰하는 일환으로 기본동사에 속하는 「いく・くる」를 한국어의 「가다・오다」와 비교, 고찰한 후, 문법화[1]의 정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

*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1) 일반적으로 문법화란 용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립가능한 내용어(content word)가 실질적인 의미 즉 자립성이 희박해져 문법기능만을 담당하는 기능어(function word)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기능어화, 문법형식화, 형식화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반언어학에서는 문법화의 가장 큰 특징은 표백화(bleaching)과 탈범주화(decategolization)를 들고 있다. 이상은 日野(히노 2003) , 三上(미카

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물론 문법화의 정도가 언어에 따라 상이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그 상이점을 고찰하는 것은 문법화의 진행화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어학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의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주로 양언어간의 문법화의 상이점을 중심으로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일본어의 「テイク・テクル」를 출발점으로 한 논문이므로, 양언어에 있어 특이한 문법화과정을 보인다고 생각되는 한국어의 「어 가다」[2]를 통해 본「テイク」, 일본어의 「テクル」를 통해 본 한국어의 「어 오다」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일본어의 「テイク・テクル」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テイク・テクル」의 전체상을 본동사용법과 보조동사로 나누어 고찰한 것이다(吉川(요시카와 1976), 庵(이오리 2000) 등). 둘째, 의미의 확장으로 이를 파악하는 연구이다(浜田(하마다 1989), 益岡(마스오카 1997) 등). 셋째, 형태적인 연구이다(森山(모리야마 1988)). 첫 번째 입장에서의 연구에는 한국인 일본어연구자들의 논문도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이광수(2002)를 들 수 있다.

한국어학 쪽에서의 연구는 「가다」와 「오다」 에 관한 연구 이기동(1977), 전수태(1987)등 다수 존재하며, 「어 가다・어 오다」 와 관련된 보조동사에 관한 연구는 손세모돌(1996) 등이 있다.

일본어학 연구자들이 대조언어학의 입장에서 기술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보조동사에 관한 것으로는 이미숙(2002)이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어교육의 일환으로 대조연구를 행하는 연구들도 볼 수 있다(李廷玉・石井奈保美(이정옥・이시이 나오미 2012), 홍영주(2013) 등)

그러나, 문법화의 입장에서 전항동사의 종류에 중점을 두어 한국어와 일본어의 두 구문을 대조하고, 문법화의 전개양상을 추측하거나, 전항동사와의 결합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한 논문은 보기 힘들다. 본 논문의 의의는 여기에 둘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어의 「テイク・テクル」구문의 개관

일본어에는 동사의 [テ]형에 한정된 몇 개의 동사가 후접하여 단독으로 사용될 때와는 다른 기능 소위 조동사적인 기능을 갖는 경우가 있다. 寺村(데라무라 1984:123)에서 예로 든 다음과

미 1972), 三宅(미야케 2005)등을 참고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2) 「テイク・テクル」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형태는 [고 가다/어 가다/아 가다]와 [고 오다/어 오다/ 아 오다]가 있으나 대표형으로 [어 가다]와 [어 오다]를 채택하였다.

같은 동사류가 대표적인 보조동사라고 할 수 있겠다.

寺村는 어스펙트 체계내에서 2차적인 어스펙트를 담당하는 것으로 a, b, c 세 종류를 들고 있다.

a (~シテ)イル、アル、シマウ、イク、クル
b (~シテ)オク、ミル、ミセル
c (~シテ)ヤル、アゲル、モラウ、イタダク、クレル、クダサル

이들 중 「テイク・テクル」보조동사 구문만을 간단히 개관하고자 한다. 이 표는 李(2010)을 인용한 것으로 일본어의 「テイク・テクル」의 문법화과정을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공간이동>, <대상이동>, <심리이동>, <시간이동>은 益岡(마스오카 1997)에 따라 문법화의 연속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채택한 용어임을 밝혀둔다.

<표 1> 「テイク・テクル」구문의 개관[3)]

		テクル	テイク
공간이동		ご飯を食べてきた	パンを買っていった
대상이동		酒を送ってきた	×
심리이동		彼があやまってきた	×
시간이동	개시	雨が降ってきた	×
	동작의 계속	ずっと研究してきた	これからどうやって生きていくんだろう
	변화의 계속	だんだんやせてきた	もっと先生らしくなっていくんだろう

3. 문법화의 차이

3.1 「イク・クル」와 「가다・오다」

일본어의「イク・クル」에 해당하는 한국어 「가다・오다」는 일본어의 「イク・クル」와 마찬

3) 이 표는 일본어의 「テイク・テクル」를 문법화의 정도에 따라 개관한 것으로 3절 이후의 의미용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대표예를 제시함으로써 논의 전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가지로 본동사로써의 용법뿐 아니라 보조동사로서의 용법을 지니고 있다. 형식면에서의 차이점은 일본어의 전항동사는「テ」형이 되어 보조동사를 만드나 한국어는「어/아」형태로 보조동사화 된다는 점이다.

본동사로서의 용법은 다음과 같이 격조사의 공기 제약 등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유사하다.

(1) 학교를 가다 / 학교를 오다
(1-1)*学校を行く / *学校を来る

(2) 학교에 가다 / 학교에 오다
(2-1) 学校に行く / 学校に来る

(현관앞에서 자신을 부르는 엄마에게)
(3) I'm coming!
(3-1) 가요!
(3-2) 行く！

이상과 같이 한국어의「가다」「오다」는 일본어의「ヲ」에 해당하는 조사「을」「를」과의 생기가 가능하다는 점은 차이점이라 할 수 있으나 착점을 나타내는 일본어의「ニ」격에 해당하는「에」와의 공기면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예(3)과 같이 현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불렀을 때 영어에서는「come」이 사용되나 한국어와 일본어는「가다」와「行く」가 사용된다는 점 역시 동일하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응예를 몇 개 들어보도록 하자.

(4) 오늘 뭐 해? 친구하고 영화보러 가려고.
(今日、何するつもり？)(友達と映画に行こうと思って。)

(5) 오늘 우리 엄마가 아침부터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걸 보니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시나봐
(今日、うちの母、朝一から張り切って掃除しているのをみると、とても大事なお客さんでも来るみたい)

3.2 한국어의 『어 가다』로 본 일본어의 『テイク』

우선 한국어의 「어 가다」의 예와 일본어의「テイク」와의 대응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7~9)의 한국어의 예는 손세모돌(1996 : 121~158)에서의 인용이다.

(6) 이 호텔 면세점과 시내 백화점에 들러 엄청난 양의 김치를 사 갔다
(6-1) このホテルの免税店と市内の百貨店に寄って、すごい量のキムチを買っていった。

(7) 이 아이는 나 혼자 키워 갑니다.
(7-1) この子は私一人で育てていきます。

(8) 지금부터 나 혼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1) 今から私一人で生きていけっておっしゃるのですか。

(9) 온돌이 점점 식어간다.
(9-1) オンドルが段々冷めていく。

예(6)은 <공간이동>을, 예(7、8)은 <동작의 이동>을, 예(9)는<변화의 계속>을 나타내는 예로 「어 가다」의 예는 예상대로 일본어의「テイク」구문과 그대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4].

(10) 밥 *다* 먹어 가니까 좀 기다려.
(10-1)*ご飯　ほとんど食べていくからちょっと待ってね。<직역>
(10-2) ご飯、もうすぐ食べ終わるからちょっと待ってね。

(11) *거의 다* 읽어 가니까 조금 이따 돌려 줄게.
(11-1)*ほとんど全部読んでいくから少し後で返すわ。<직역>
(11-2) もう少しで読み終わるから後で返すわ。

(12) A:숙제 다 했어?　　B:응, *거의 다* 해 가.

4) 다만 일본어는 「入っていく、出ていく」처럼 「いく」「くる」에 의해 <방향성>이 보완되기는 하나 「入る、出る」라는 단독형태도로 사용된다. 이에 비해 한국어의 [들다, 나다]는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항상 [가다] 나 [오다]와 함께 쓰여 [들어가다 들어오다, 나가다, 나오다]의 형태로 쓰인다.

(12-1) A: 宿題、終わった？
B:*うん、ほとんど全部やっていってるよ。<직역>
(12-2) A:宿題、終わった？ B:うん、ほとんど終わりつつあるよ。

그러나 예(10)(11)(12)의 <시간적 이동>(어스펙트표현)에 있어서는 한국어의 경우 일본어에는 존재하는 않는 용법이 존재하는 듯 하다. (10)(11)(1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食べ終わる」「読み終わる」「終わりつつある」라는 어스펙트를 한국어에서는 「어 가다」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경우는「거의(殆ど)」「 다(全部) 」라는 부사가 둘 다 혹은 한 쪽 사용되는 경우로, 이들 부사류가 공기하지 않으면 다음의 예(10-3)과 같이 불안전한 문장이 되고 만다.

(10-3)*밥 먹어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ご飯食べていくから、少し待ってね。<직역>

또한 「완전히(完全に)」「마지막까지(最後まで)」「반쯤(半分ほど)」와 같은 부사와는 공기불가능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러한 예는 <종료점(終了点)>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종료근사점(終了近似点)>을 나타내는 「어 가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사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완전히 문법형식화가 끝난 형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완전한 문법형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음의 예 (16)과 같이 「오다」「가다」라는 정반대의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가 동시에 사용되는 점을 보면 「가다」의 <문법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가다」의 <문법화>의 정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예(17)이다.「가다」동사가 전항동사로도 보조동사로도 사용되고 있다. 동일형태의 연속사용은 한 형태가 본동사와는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경우 후접형태인 「가다」가 보조동사로 쓰여 <종료근사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밥 *완전히* 먹어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ご飯完全に食べていくから、少し待ってね。<직역>

(14)*밥 *마지막까지* 먹어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ご飯最後まで食べていくから、少し待ってね。<직역>

(15)*밥 *반쯤* 먹어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ご飯半分食べていくから、少し待ってね。<직역>

(16) A :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지금 어디야?
今、どこ?
B : *거의 다* 와 가
*殆ど来ていく。<직역>

(17)?이제 거의 다 가 간다. [5)]
*もうほとんど行っていく

이상과 같이 한국어의 「어 가다」는 일본어의 「テイク」와 비교했을 때 문법화의 진행이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부사류의 도움으로 「먹다, 읽다, 하다 등」과 같은 동사류에 한계점을 만들어 주며 이로 인해 「어 가다」구문이 성립된다[6)].

또한 한국어의 경우에는 (18) (19)와 같이 <단일사태>[7)]의 경우라 할지라도 「어 가다」구문의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일본어의 경우 (18-1) (19-1)과 같이 과정성이 없는 「死ぬ、消える」 등은 <단일사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テイク」구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18) 환자가 *다* 죽어 간다.
(18-1)*患者が殆ど死んでいく。 <직역>
(18-2) 患者がほぼ死んでいる/死にかけている。

(19) 촛불이 *다* 꺼져 간다.

---

5) 사독자로부터 용인도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예(16)의 [다 와 가다]에 비하면 용인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완전히 사용 불가능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한국어의 [어 가다]의 문법화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를 붙여 그대로 실었다.

6) 한계성에 관하여 조금 더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나, 경향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1> 다 와 가다, 다 도착해 가다: 한계동사
2> 다 읽어 가다, 다 먹어 가다, 다 써 가다: 읽다, 먹다, 쓰다 는 비한계동사이나 [다]와 함께 쓰여 한계동사화가 이루어졌다.
3>*다 달려 가다, *다 걸어 가다 : 비한계동사
즉, 비한계동사의 한계동사화 가능 여부에도 동사의 종류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본고에서의 단일사태란 예(18,19)와 같이 단일주어에 관련된 하나의 사태를 뜻한다. 이에 반해 복수사태라함은 예(20)(21)과 같이 복수주어에 관련된 사태로서 [죽어가는]사태가 단일사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주어의 수만큼 존재하여 복수사태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여, 이는 <파생적인 의미>라할 수 있다.

(19-1)*ロウソクが殆ど消えていく。<직역>
(19-2) ロウソクがほぼ消えている/消えかけている。

물론 한일양국어 모두 <복수사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다음과 「テイク」「어 가다」구문이 성립한다.

(20) 戦争で*沢山の人が*死んでいった。

(21) *수많은 사람들이* 희끄무레한 어둠속에서 나타났다가 이내 어디론가 사라져갔다.

마지막으로 일본어에서는 「テイク」가 사용되나, 한국어에서는 「어 가다」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2) 今年も多くの学生たちが卒業していった。
(22-1)*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졸업해 갔다. <卒業していった>
(22-2)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졸업했다. <卒業した>

(23) 最近、社員が三人も辞めていった。
(23-1)*최근에 사원이 세 명이나 그만두어 갔다.[8] <辞めていった>
(23-2) 최근에 사원이 세 명이나 그만두었다. <辞めた>

(24) 本校の通信制課程を卒業していった生徒からのメッセージです。
(24-1)*본교의 통신제과정을 졸업해 간 학생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卒業していった>
(24-2) 본교의 통신제과정을 졸업한 학생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卒業した>

예(22)(23)과 같은 경우는 일본어는 성립하나 한국어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22)(23)만을 봤을 때는 <복수사태>의 예문처럼 보이나 예(24)와 같이 <단일사태>의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복수사태>인 경우 일본어는 성립하고 한국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8) [그만두고 갔다]라는 <계기>의 해석은 가능하나, 예(11)은 <계기>의 의미가 아니므로 상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예(22)(23)(24)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은 전항동사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즉, 「卒業する、入学する、(組織を)辞める、入社する」등과 같은 <사회생활의 영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어휘적 특성을 지닌 동사가 전항동사에 왔을 경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다.

3.3 일본어 『テクル』로 본 한국어의 『어 오다』

塚本(쓰카모토 2006)는 「복합격조사」「복합동사」「テイク・テクル」구문을 예로 들어 한국어보다 일본어가 문법화의 진행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절에서는「テクル」구문이 그대로 한국어의 보조동사구문에 적용되는지 고찰하여 한일양국어의 문법화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문은 塚本(쓰카모토 2006)과 李(2010)에서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25) 駅まで歩いてきました。
(25-1) 역까지 걸어 왔습니다.

(26) 母が花を買ってきた。
(26-1) 어머니가 꽃을 사 왔다.

(27) 家主が家賃を上げてきた。
(27-1)*집주인이 집값을 올려왔다.
(27-2) 집주인이 집값을 올렸다.

(28) こっちが笑って受けながしていれば、ついにはあやまってくるに相違ない。<さぶ>
(28-1)??내가 그냥 웃어 넘기면 결국에는 사과해 올 것임에 틀림없다.
(28-2) 내가 그냥 웃어 넘기면 결국에는 사과할 것임에 틀림없다.

(29) 先生は20年間もこの問題について研究してきた。
(29-1) 선생님은 20년간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왔다.

(30) 前に進むと、海が見えてきた。
(30-1)*앞으로 나아가니 바다가 보여 왔다.(직역)

(30-2) 앞으로 나아가니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30-3) 앞으로 나아가니 바다가 보였다.

(31) 急に雨が降ってきた。
(31-1)*갑자기 비가 와 왔다.(직역)
(31-2)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다.
(31-3) 갑자기 비가 왔다.

예(25)(26)은 <공간이동>, 예(29)는 <동작의 계속>, 예 (30)(31)은 <개시>의 예이다. <공간이동>, <동작의 계속>의 경우 한일양국어 모두 성립가능하지만, <개시>의 경우는 일본어는 성립하나 한국어는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별도의 문법형식인 「~기 시작하다」를 이용하여 <개시>의 의미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또한 예(27)(2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어에서는 <심리적이동>을 나타내는 예가 존재하나 한국어의 「어 오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싸움을 걸어 오다」,「전화를 해 오다」, 「보고를 해 오다」,「항의를 해 오다」등은 예(27-1)에 비하면 안정적인 인상을 준다. 한국어의 경우 <대상의 이동>을 문법화한 <심리적 이동>은 아직 문법화의 도중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문 검색결과를 통해 유추하건데 상대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언어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류」나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류」는 한국어에서도 「어 오다」구문의 성립을 가능하게 한다고 여겨진다[9]. 문법화가 진행된 일본어의 「テクル」구문은 다음과 같은 예도 성립가능하나 예(27)이 한국어의 경우 성립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음 예들도 한국어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32) 相手チームはエースをたててきた。(山本 2000)
(32-1)*상대팀이 에이스를 세워 왔다.

(33) (野球で)相手チームは初回からがんがん打ってきた。(야구중계)
(33-1)*상대팀이 일회부터 쳐 왔다.

9) 예(27-1, 28-1, 32-1,33-1)과 비교한 적합성의 여부이다. 필자의 직감으로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며 실제로 [싸움을 걸어오다]이외는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하는 모어화자도 있었다.

4. 마치며

한국어의 「어 가다・어 오다」와 일본어의 「テイク・テクル」는 <공간이동>과 <시간이동>의 <동작의 계속><변화의 계속>을 나타내는 경우는 성립가능하나 일본어의 경우에 성립가능한 「テクル」의 <개시>용법은 한국어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며 또한 <심리이동>의 경우도 일본어의 「テクル」는 성립하나 한국어에서는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리이동>의 문법화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대상 이동>의 경우는 동사의 제약은 존재하나 한국어도 「어 오다」가 성립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사실은 문법화의 방향성을 설명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한국어의 「어 오다」도 일본어의「テクル」와 마찬가지로 <심리이동>을 나타낼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어의 「テクル」의 문법화 과정을 답습하리라는 예상까지 가능하게 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어에서는 「다 먹어 간다」와 같이 「어 가다」구문으로 <종료근사점>을 나타낼 수 있으나 일본어의 「テイク」에는 이러한 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종료근사점>을 나타내는 문법형식이 존재하는 것도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일본어는 「テクル」가, 한국어는 「어 가다」가 각각 대응형식인「テイク」,「어 오다」보다 문법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사한 의미용법을 지닌 본동사라 하더라도 보조동사화 되는 문법화 과정에 있어서는 양언어간에 다른 진전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인 한국어학습자, 혹은 한국인 일본어학습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임과 동시에 대조언어학이 밝혀내야 할 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參考文獻】

이기동(1977)「동사 오다 가다의 의미 분석」『말』 2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이광수(2002)「日本語「てくる」文　構造」『日語日文学研究43輯』, pp.109-124
이미숙(2002)「『~てくる』와 『~어 오다』対照研究 – 無意志的　運動　을 나타내는 動詞에 있어서-」『日語日文学研究』43輯, pp.125-145
홍영주(2013)「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위한 일본어 작문법에 관한 제안-한국어 [가다]표현이 나타나는 문장을 예로-」『일본어교육연구』제29집, pp.227-324
손세모돌(1996)『국어 보조용언 연구』한국문화사, pp.121-158
전수태(1987)『국어 이동동사 의미연구』한신문화사
庵功雄 他(2000)『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pp.116-121
石綿梅雄・高田誠(1990)『対照言語学』おうふう, pp.7-24

李廷玉(2010)「現代日本語のテ形補助動詞研究」大阪大学博士請求論文
李廷玉・石井奈保美(2012)「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テイク・テクルの産出」『日本語学研究』第35輯, pp.327-341
三宅知宏(2005)「現代日本語における文法化」『日本語の研究』1-3, pp.61-76
日野資成(2001)『現代語の研究-文法化の理論と応用』九州大学出版部, pp.1-20
寺村秀夫(1984)『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くろしお出版, pp.114-163
塚本秀樹(2006)「日本語から見た韓国語-対照言語学からのアプローチと文法化-」『日本語学』Vol.25, 明治書院 pp.16-25
浜田真理子(1989)「「行く / 来る」と「~ていく / ~てくる」の意味の繋がり」Sophia Linguistica 27、Sophia University
益岡隆志(1997)「日本語の補助動詞構文」『複文』くろしお出版, pp.181-195
三上章 (1972)『現代日本語序説』くろしお出版, pp.194-200
森山卓郎(1988)「テイク・テクルについて」『日本語動詞述語の研究』明治書院, pp.181-197
山本裕子(2000)『「くる」の多義構造』『日本語教育』105号, 日本語教育学会, pp.11-20
吉川武時(1976)「現代日本語のアスペクトの研究」『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ぎ書房, pp.155-327
Paul J.Hopper and Elizabeth closs Traugott(1993)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17(일본어역 日野資成(2003)『文法化』九州大学出版部)

【예문출전】

인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예문은 KAIST(www.gensum.kaist.ac.kr), GOOGLE에서 수집한 것과 작례에 의한 것이며, 각 예문의 일본어역, 한국어역은 필자에 의한 것임.

논문투고일 : 2014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0일

<要旨>

「テイク」「テクル」와 「어 가다」「어 오다」의 문법화의 차이점

본 논문은 한국어의 「어 가다・어 오다」와 일본어의 「テイク・テクル」의 문법화의 상이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한국어의 「어 가다・어 오다」와 일본어의 「テイク・テクル」는 <공간이동>과 <시간이동>의 <동작의 계속><변화의 계속>을 나타내는 경우는 성립가능하나 일본어의 경우에 성립가능한 「テクル」의 <개시>용법은 한국어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며 또한 <심리이동>의 경우도 일본어의 「テクル」는 성립하나 한국어에서는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리이동>의 문법화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대상의 이동>의 경우는 동사의 제약은 존재하나 한국어도 「어 오다」가 성립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사실은 문법화의 방향성을 설명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한국어의 「어 오다」도 일본어의「テクル」와 마찬가지로 <심리이동>을 나타낼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어의 「テクル」의 문법화 과정을 답습하리라는 예상까지 가능하게 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어에서는 「다 먹어 간다」와 같이 「어 가다」구문으로 <종료근사점>을 나타낼 수 있으나 일본어의 「テイク」에는 이러한 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종료근사점>을 나타내는 문법형식이 존재하는 것도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일본어는 「テクル」가, 한국어는 「어 가다」가 각각 대응형식인「テイク」,「어 오다」보다 문법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Difference of Grammaticalization between 'teiku, tekuru' and 'a gata, a ota'

<Psychological moves> can be expressed by an abstract form of the verb "テクル(te kuru)" which is usually used to describe the moves of concrete subjects, which illustrates the continuity of grammaticalization. Such <subject and psychological moves> are only possible for the verb "テクル(tekuru)" and do not exist for the verb "テイク(te iku)". <Temporal moves> are usually treated as part of aspect, but they can also be considered concessive modal verbs.

In addition, I examin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grammaticalization. This comparison reveals that the Korean language's "-어 가다a gata" is more grammaticalized than its Japanese analogues "テイク(te iku)". And that Japanese language's "テイク(te iku)" is more grmmaticalized than its korean analogues "-어 오다 a ota"